

목포

4선 노리는 박지원에 7명 도전장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박지원	조상기	박지원	문보현	김환석	유선호	김한창	송태화
나이 50	66	73	50	38	62	43	54
역력 ·전) 국정원 근무 ·전) 로펌 H&P ·전) 상임고문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전) KBS 이사	·현) 국회의원 ·전)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현) 당정책연구위원 ·전) 목포대총학생회장	·현) 민주노동당 전남본부 안전국장 ·전) 목포대총학생회장	·전) 18대국회법사위원장 ·전)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정무수장	·전) 국민권익위 상근 전문위원 ·전) 행정부 공무원 ·전) 녹색연합연구소장	·현) 제이엔컴 대표이사 ·전) 녹색연합회 목포지회장

더민주에서는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조상기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 측에서는 변화를 원하는 목포 민심과 더민주 지지층이 결합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박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 진영에서는 이미 목포 민심의 흐름은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살리고 총선 이후 정권 창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단수 공천

더민주 조상기 후보 내세워

정치력과 내공을 갖춘 박 후보에 기울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H&P 법률사무소 전 상임고문인 박석만 후보를 내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당의 정

책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문보현 후보를 대타로 내세워 진보 표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김환석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안전국장이 표발을 갈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유선호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출신의 김한창 후보와 전 녹색연합회 목포지회장을 지낸 송태화 후보가 뛰고 있다. /임동욱 기자

나주·화순

신정훈-손금주 치열한 접전

나주·화순은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2014년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신정훈 의원은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장을 거치면서 행정과 정치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왔다.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선 농업담당 원내부대표와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당 내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년5개월간의 의정활동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활동하면서 한중 FTA 농업 피해 축소 등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는 신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지법 판사와 서울 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 후보는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해석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주 출신인 손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름 김종우	신정훈	손금주	노정재
나이 58	51	44	64
역력 ·현) 당 나주·화순 ·전) 동남농협 조합장	·현) 국회의원 ·전) 나주시장	·현) 법무법인 (유)용추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 ·전) 판사	·현) 꼬빠뽕 연구소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

행정경험 풍부 vs 법조인 강점

혁신도시 표심 공략이 변수

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그는 패거리 부패정치를 척결하고 나주·화순 지역민을 섬기면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이종형기자golee@

선거 변수도 있다.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는데, 증가한 인구 대부분이 외지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김종우 전 동강농협 조합장이, 노정재 전 노동부 수석 근로감독관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종형기자golee@

여수 갑

무주공산 ... 1여 2야 '3자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4선 김성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여수 시갑의 경우 더민주에서는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국민의당에서는 이용주 변호사가 각각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치과 의사인 신정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수지회장과 무소속 이광진 후보가 나섰다.

현역인 김성근 의원은 더민주 소속이고, 주철현 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어느 후보가 조직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더민주 송 후보는 여수시의원과 3선 전남도의회를 지내는 등 20여년 간 지방자치에 몸 담아와 탄탄한 바다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전남도의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화회의 의장 등을 거쳐 지역 사정에도 밝다.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에 접목, 지역발전 견인하겠다는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름 신정일	송대수	이용주	이광진
나이 50	60	47	50
역력 ·현) 초록우산 어린이 ·전) 여수지회장 ·현) 여수장애인 체육 ·전) 회이사	·현) 더민주 여수갑 ·전) 수석부위원장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현) 법무법인 태원 ·전) 대표 변호사 ·전) 법무부 범죄예방 ·전) 정책국 검사	·전) 여수세계박람회 ·전) 유치위원회 ·전) 집행위원

송대수 바다기반 탄탄 강점

이용주 '차세대 주자' 부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이 후보는 여우고과 서울대학교 법학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고

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주자' '큰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정치신인에게 여수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 후보는 영입안보가 '제2의 이정현'을 노리고 있다. 신 후보는 아권 분열로 표가 분산되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수 을

주승용 4선 성공 여부 최대 관심

여수시 을에 4선 의원을 노리는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에 맞서 새누리당 김성훈,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정의당 황필환,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가, 무소속 정장군 후보가 각각 나섰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전남도의회부터 시작해 초대 통합여수시장, 국회의원 3선을 지냈을 뿐 아니라 두 번의 국회 상임위원장과 당 사무총장, 나아가 지난해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최다득표 최고위원이 되는 등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권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김성훈	백무현	주승용	황필환	김상일	정장군
나이 51	51	63	34	53	46
역력 ·현) 전국자연보호 ·전) 중앙외교부 ·전) 기획조정관 ·전) 이사회	·전) 문재인대통령 후보 ·전) 선대위 대변인 ·전) 서울신문 편집위원	·현) 국회의원 ·현) 당 원내대표	·현) 여천청년회의소 ·전) 감사 ·전) 단국대 안암캠퍼스 ·전) 선관위위원	·전) 4·5대 여수시의원 ·전) 대림대 대학원 ·전) 공대대표	·전) 민주노동당원 ·전) 보합설계사

주승용 '승용불패' 재현 각오

더민주 백무현 화백 도전장

25년여 동안 8번의 선거에서 7번이나 승리한 '승용불패'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백 후보는 서울신문 화백과 전국

시사문화작가회의 회장, 광주·전남 언론노조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돼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의 권유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이야말로 '재앙'이라는 절박감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민주당 후보 단일화 변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해남 민심의 향배다. 이에 따라 해남 출신의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록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3선 고지에 도전한다. 김 후보 진영에서는 지난 18·19대에서의 성실한 의정 생활에 대해 지역 민심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 출신의 김 의원이 재선을 거치는 동안 정치적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 등이 부담이다.

국민의당에서는 감사원 교육원장 출신의 윤영일 후보가 공천됐다. 해남 출신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중연합당
이름 명옥재	김영록	윤영일	윤재갑	이정환
나이 70	61	58	61	47
역력 ·현) 당 해남·완도·진 ·전) 도당협위원장 ·전) 해남군의원	·현) 국회의원 ·전) 더민주 수석대변인	·현) 한국외대 ·전) 조빙교수 ·전) 감사원 교육원장	·전) 해군제1함대 ·전) 사령관 ·전) 해군군수서기관	·전) 해남군의원 ·전) 민주노동당 ·전) 해남군위원장

유권자 많은 해남 민심 주목

더민주 김영록 3선 여부 관심

윤 후보는 중앙 무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완도·진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는 해남·완도·진도를 일자리, 일자리, 살자리 1번지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

연양당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해군 제1함대 사령관 출신의 윤재갑 후보가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해남 군의원 출신인 명옥재 후보가, 민중연합당에서는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장을 지낸 이정환 후보가 출마표를 던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무안·신안

현의원-3선 지사-3선 군수 3파전

3선 전남지사와 3선 무안군수,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간 박매치가 성사됐다. 국민의당은 21일 이 선거구에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공천했다.

국민의당은 박 전 지사와 그의 지사 재임 시절 민원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간 경선을 하기로 했지만 방침을 바꿨다. 국민의당은 본선 경쟁력이 박 전 전남지사가 높다는 점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정당인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박 전 전남지사는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3선 지사를 지낸 박 후보는 고향인 영암이 선거구 조정으로 무안·신안에 편입되면서 이 선거구로 출마를 결정했다.

더민주에서는 3선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후보가 현역인 이윤석 의원을 안심번호 휴대전화로 활용한 ARS경선에서 어렵게 따돌렸다. 서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이 의원과 경선을 벌였지만 석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름 주영순	서삼석	박준영	장문규
나이 70	56	69	48
역력 ·현) 국회의원 ·전) 목포상공회의소 ·전) 회장	·전) 무안군수 ·전) 전남도의원	·전) 청와대 공보수석 ·전) 비서관 ·전) 전남도지사	·전) 목포노조위원장 ·전) 금속노조전남서남 ·전) 지역지회장

주영순·박준영·서삼석 구도속

고향 서로 달라 표심 향배 변수

패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와신상담'해 온 서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그동안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 의원을 누르고 어렵게 본선 진출을 하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곳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주영순 의원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역의원, 지사·군수 출신 인사의 구도도 흥미롭지만 후보들의 고향도 갈려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서 후보는 무안, 주의원은 신안 출신이다. 정의당에서 노동운동가 장문규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곡성·구례

우윤근 4선 도전 맞서 6명 출사표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승안	우윤근	정인화	유현주	장대범	최유성	박형모	박형모
나이 62	58	58	45	38	51	48	48
역력 ·전) 메인테크 ·전) 대표이사 ·전) 당 광양·구례 ·전) 당 협회위원장	·현)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전) 광양부시장 ·전) 전남도 ·전) 관광문화국장	·현) 전남진보연대 ·전) 집행위원장 ·전) 전남도의원	·현) 유니세프후원회원 ·전) 월드비전후원회원	·전) 18대 민주통합당 ·전) 대통령후보 후보 ·전) 장안대 신학원 ·전) 단 책임연구원	·전) 교육행정직 ·전) 공무원 ·전) 경남 주산·부기 ·전) 학원 교사	·전) 교육행정직 ·전) 공무원 ·전) 경남 주산·부기 ·전) 학원 교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4선 도전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정인화 전 광양부시장이 나섰다. 또 이승안 순천제일대 겸임교수, 민중연합당 유현주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무소속으로는 최유성 전 장안대 신학협력단 연구위원, 장대범씨, 박형모씨 각각 표발을 다지고 있다.

법천노 후보로 분류되는 더민주 우 후

우윤근 중앙인맥 풍부

정인화 정통 행정관료 출신

보는 당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중앙인맥이 풍부하다. 굵직한 지역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대선 중진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전남도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장과 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23.0%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 경선에서 무난하게 승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 對 현역 맞대결 지역투표 변수

사실상 두 개의 지역구가 합쳐진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장귀석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와 민중연합당 위두환 장흥군농민회장이 경쟁에 가세했다.

고흥 출신인 신 후보와 강진 출신인 황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수로는 고흥 출신인 신 후보가 유리하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 기반이 굳건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황 후보는 강진의 전폭적 지지가 강점이나 힘겨웠던 경선 뒤글을 수습해야 한다.

신 후보는 민주당이 만들어진 지난 1955년에 태어나 민주당과 동갑내기로 지난해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했다. 김성근 전라공천위원장이 당 지도부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장귀석	신문식	황주홍	위두환
나이 62	62	64	50
역력 ·현) 광주·전남지방 ·전) 노동위원회위원 ·전) 청담대 특임교수	·현) 국회의원 ·현) 당 조직본부수석 ·전) 부본부장	·현) 국회의원 ·전) 강진군수	·현) 장흥군 농민회장 ·전) 전남농사사무총장

더민주 신문식 고흥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 강진 출신

원인 김승환 후보를 꺾은 황 후보는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과 건국대 교수, 3선 강진군수를 역임했다.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의정활동에서 ▲쌀 도정사업 진척률려던 대기업의 계획 저지 ▲공공비축미 정부 우선지급금 인화 저지 ▲전남 쌀 푸대접 문제 최초 제기 등의 성과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인 김승환 후보를 꺾은 황 후보는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과 건국대 교수, 3선 강진군수를 역임했다.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의정활동에서 ▲쌀 도정사업 진척률려던 대기업의 계획 저지 ▲공공비축미 정부 우선지급금 인화 저지 ▲전남 쌀 푸대접 문제 최초 제기 등의 성과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